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Level on Life Satisfaction in Baby-Boom Generation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Expectation-

박서영*, 최희정**
신구대학교*, 연세사회복지연구소**

Seo-Young Park(lakelotus2010@gmail.com)*, Hee-Jeoung Choi(egaohellen@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기대감(생활수준 및 정부정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2년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이며,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1년생 1,7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SPSS 21.0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소비수준이 미치는 효과는 주관적 기대감에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베이비붐 | 소비수준 | 주관적 기대감 | 삶의 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nsumption leve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 generation and further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expectation(standard of living and government policy). This research uses the panel survey to explore ageing society in 2012 made by Korean Labor Institute, which studied 1,756(born in 1955~1961). SPSS 21.0 Package was applied to analyze the date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first, the findings show that as the consumption level increase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boom generation goes up. Second, the findings reveal that subjective expectation partially mediates the influences of consumption leve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 generation. This study further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direction properties on baby-boomer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tudy.

■ keyword : | Baby-Boomer | Consumption Level | Subjective Expectation | Life Satisfaction |

I. 서론

현 사회의 노년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로 지칭되는 세대로 빠르게 세대 교체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경제 성장의 주역이면서

접수일자 : 2016년 03월 02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11일

교신저자 : 최희정, e-mail : egaohellen@gmail.com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세대라는 점이다[1]. 최근 연구에서도 기존 노인세대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신체적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비행동에서도 자신감 있고 능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4].

현재 총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5]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2010년부터 은퇴가 시작되었고 2018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에 해당되는 1963년생이 55세로 은퇴를 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성된다. 즉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게 되면서 세수 감소와 재정악화, 일자리 부족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복지 수혜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에 상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를 하여 사회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이들을 기존 노인세대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이비 붐 세대는 '갠 세대'라고 하여 부모의 돌봄과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현실 및 은퇴에 대한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베이비붐 세대(45세-54세)의 자살 사망자 수가 5,158명[6]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수치는 2009년 3,060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신 노년층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서의 베이비붐 세대는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년기가 되어도 이전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할 것이고, 규모는 작아질지라도 같은 패턴의 소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소비수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노년 문화, 성공적 노화와 같은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부

각되고 있다. 기존 노인세대와 비교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른 소비의 수준 또한 그 폭이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 패턴의 변화이다. 기존 노인세대는 본인 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소비가 많았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취미 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미 베이비부머의 소비성향이나 보유 금융자산이 과거 노인층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노후관이나 인생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8]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노인의 소비는 과거, 현재, 미래 소득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 노인의 생애전반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변인이 될 수 있다[9].

한편, 삶의 만족도는 소득, 소비와 같은 객관적인 외적요인과 더불어 주관적 기대감과 같은 내적요인이 동시에 작용[10]되기 때문에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대감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이론적 배경

1.1 노인의 소비와 삶의 만족도

기존 노인세대와 비교하여 신 노년층으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를 인생의 종말기가 아닌 자아실현의 시기로 생각하여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활동적인 노후를 보낸다[11].

기존 노인소비자들의 소비는 자녀양육비 및 식비 등의 생활비와 같은 내용이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건강이나 취미, 여가 생활 등 자신을 위한 소비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기존 노인세대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소비의 측면에서도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12]. 그렇기 때문에 소비수준이나 소비의 패턴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남승규[13]의 견해와 같이 이제는 노인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의식의 변화로 인해 소비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수준의 본질적인 욕구를 이미 충족시킨 노인소비자들은 이미 물질적 소비를 뛰어넘어 자아실현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도 같은 단계를 반영할 것이라는 최혜경[14]의 주장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자립적 소비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사회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복지수혜 대상이 되는 등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 없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향상되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본 연구에서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큰 맥락에서 소비가 국가는 물론 개인의 복지수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최소한의 소비 수준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운영, 정세은[16]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로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에서 소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의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소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생각할 때 소득만큼이나 소비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검증은 하고자 한다.

1.2 노년기의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김기향 외[17]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삶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Havighurst[18]에 의하면, 각 개인이 인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정도이다. 삶의 만족도 개념과 관련하여 1970대 이후 인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

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중시되고 있다[15].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각자가 처한 소득, 건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환경과 주관적 기대감과 같은 내적기제가 동시에 작용[10]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19].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지표는 물론 주관적 기대감을 활용한 연구[20]나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척도를 활용한 연구[21]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된 한국사회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 객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의 일자리, 수명,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 정서적 요인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인으로 파악된다[10].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이외에도, 주관적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파악하여 그것들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베이비붐의 소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을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와 상당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노인관련 제품이나 특정시설 등과 관련한 노인소비자[22], 노인가구의 소비 패턴이나 유형화, 특성에 관한 연구[23-25], 소비실태분석[26] 등이 다루어져 왔다. 또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 보다는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연구이지만 절대적인 경제 수준보다 상대적인 상태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이 크게 변화 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주관적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다양한 요인들 중, 소비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체계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의 요인과 삶의 질의 관련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10][27]. 물론한 연구에서 내, 외적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것과 삶의 질에 대해 입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이 처한 맥락적 요인과 내적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흥미로운 연구[28]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비슷한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맥락적 요인 중 소비의 차원을 선택하고, 내적요인으로 볼 수 있는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삶의 만족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소비수준이 주관적 기대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주관적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주관적 기대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논하는데 있어 내적요인(주관적 기대감)과 외적요인(소비수준)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고령화연구패널¹⁾ 제4차 기본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원 자료에서 1955년부터 1961년 출생자 1,7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주관적 기대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PSS 21.0 Package을 사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수: 소비수준

소비수준은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생활비에 대한 연속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서의 생활비는 만원 단위로 응답한 것으로, 식비,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2.2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의 삶의 만족도는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5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베이비부머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6으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1개의 요인이 분산의 59.6%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국민으로, 표집틀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며, 조사항목은 인구,가족,건강,고용,소득,자산,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총 7개 조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었다.

표 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공통성		
문항	추출	
1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는가	.571
2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는가	.593
3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가	.606
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가	.476
5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하는가	.734
설명된 총 분산		
합계	%분산	%누적
2.980	59.608	59.608

2.3 매개변수: 주관적 기대감

주관적 기대감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 수준 및 정부정책에 대하여,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10가지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생활주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의 질문 중 1과 9는 역코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주관적 기대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4개의 요인이 분산의 66.2%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통제변수: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취업 상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나이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당시인 2012년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으로 원자료를 재분류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원자료를 재분류하였으며, 학력은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이상 5로 원자료를 재분류하였다. 종교와 취업 상태는 있음 1, 없음 0으로 원자료를 재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취업상태, 소비수준 등이 포함되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대상 중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1955

년생부터 1961년생 1,756명 중 여성(57.5%)이 남성(42.3%)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무학을 포함해 초등학교 이하가 45.1%를 차지하였는데,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노년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의 경우, 종교 없음(53.6%)과 종교 있음(46.4%)의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종교가 없는 베이비붐세대가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상태 조사결과 베이비붐세대가 취업 중인 경우는 전체의 68.2%로 조사당시인 2012년에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51세~57세인 점을 감안하여 취업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의 평균금액이 206.86만원이었는데 이는 중위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 간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주관적 기대감에 대한 요인분석

공통성		
문항	추출	
1	나는 앞으로 생활수준이 점점 낮아질 것 같다.	.638
2	나는 자식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741
3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740
4	국민연금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623
5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642
6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822
7	노후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788
8	앞으로 10년 안에 남북이 통일이 될 것 같다.	.580
9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게 될 것이다.	.623
10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 같다.	.428
설명된 총 분산		
합계	%분산	%누적
1.888	18.879	18.879
1.808	18.083	39.692
1.701	17.012	53.974
1.227	12.272	66.246

2.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표 3]의 첫 번째 모델(소비수준→삶의 만족도)은 베이비붐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나이($\beta=.027, p=.432$), 성별($\beta=.028, p=.450$), 학력($\beta=-.061, p=.067$), 종교($\beta=.030, p=.377$), 취업상태($\beta=.086, p=.019$)로 취업상태만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인 소비수준($\beta=.239, p=.000$)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빈도(명)	백분율(%)
나이	51세	260	14.8
	52세	254	14.5
	53세	249	14.2
	54세	244	13.9
	55세	265	15.1
	56세	233	13.3
	57세	251	14.3
성별	여성	1,013	57.7
	남성	743	42.3
학력	무학	283	16.1
	초등학교	510	29.0
	중학교	309	17.6
	고등학교	468	26.7
	대학교 이상	186	10.6
종교	종교 없음	941	53.6
	종교 있음	815	46.4
취업 상태	취업 상태 아님	558	31.8
	취업 상태	1,198	68.2
소비 수준	130만원 이하	298	25.7
	~ 200만원	454	39.2
	~ 270만원	118	10.2
	270만원 초과	288	24.9
		평균 206.86만원	

3.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주관적 기대감 관계

[표 3]의 두 번째 모델(소비수준→주관적 기대감)은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과 주관적 기대감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주관적 기대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나이($\beta=-.007, p=.817$), 성별($\beta=-.018, p=.572$), 학력($\beta=.079, p=.007$), 종교($\beta=-.009, p=.769$), 취업상태($\beta=.052, p=.101$)로 학력만이 주관적 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인

소비수준($\beta=.089, p=.003$)은 주관적 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1.소비수준→ 삶의만족도		2.소비수준→ 주관적기대감		3.소비수준,주관적기대감→ 삶의만족도	
		β	B (S.E.)	β	B (S.E.)	β	B (S.E.)
통제 변수	나이	.027	.798 (1.014)	-.007	-.385 (1.667)	.028	.805 (.975)
	성별	.028	3.064 (4.767)	-.018	-4.493 (7.955)	.029	3.796 (4.584)
	학력	-.061	-2.805 (1.530)	.079**	6.813 (2.520)	-.077*	-3.556 (1.474)
	종교	.030	3.514 (3.978)	-.009	-1.941 (6.621)	.027	3.129 (3.826)
	취업 상태	.086*	10.479 (4.473)	.052	11.842 (7.212)	.077*	9.340 (4.304)
독립 변수	소비 수준	.239***	.137 (.020)	.089**	.090 (.031)	.226***	.130 (.019)
매개 변수	주관적 기대감					.267***	.140 (.017)
R ²		.073		.017		.144	
Adjusted R ²		.067		.012		.137	
R ² Change		.053		.007		.071	
F(Sig.)		11.056(.000)		3.279(.003)		20.166(.000)	

*p<.05, **p<.01, ***p<.001

4.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서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표 3]의 세 번째 모델(소비수준, 주관적 기대감→삶의 만족도)은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모델의 통제변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나이($\beta=.028, p=.409$), 성별($\beta=.029, p=.408$), 학력($\beta=-.077, p=.016$), 종교($\beta=.027, p=.414$), 취업상태($\beta=.077, p=.030$)로 학력과 취업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소비수준($\beta=.226, p=.000$)과 매개변수로 투입된 주관적 기대감($\beta=.267, p=.000$)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주관적 기대감이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Z=2.40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4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대상자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55년생부터 1961년생까지의 1,7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 그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는 소비가 물리적, 심리적 부담과 연관되어 자궁심향상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15]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상태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유지가 높은 소비수준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과 주관적 기대감 관계에 있어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수준이 주관적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소비수준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노년기의 주관적 기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 결과[10]에서 노년기의 주관적 기대감과 관련하여 심리, 정서적인 내적 영향요인에 대해서만 언급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기대감과 관련하여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와 같은 외적 영향요인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수준과 주관적 기대감 관계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것은 베이비부머의 학력이 기존 노년세대 학력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학력과 소비수준이 밀접한 연관이 생김은 물론, 높은 학력수준이 정부정책과 생활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서 주관적 기대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주관적 기대감에 영향을 주며,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은 주관적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경로가 검증된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생활수준과 정부정책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주관적 기대감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고,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의 대상자가 모든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 노년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과 소비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베이비부머가 62.7%에 달하고 있고, 월 소비 수준에 있어서도 최저층과 최고층의 차이가 현격하여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초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시작이 2010년이지만 자녀와 부모 부양의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 정책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물론 새로마지플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노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 노년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상당히 다른 점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베이비부머가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는 2018년까지 8년의 코호트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정책과 민간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구성된 정부정책과 더불어 중장년에서 노년

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존의 취업관련 정책과 더불어 심리정서적인 적응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수준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노년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기존 노년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단순히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수혜적 차원의 경제지원은 신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 및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계속 취업상태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년 세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등 은퇴 후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마저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학력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고용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기대감에 좌우되기 때문에 [8] 베이비부머들의 생활수준과 정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베이비부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주관적 기대감은 향상되고 이러한 작용에 의거하여 삶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복지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부동산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부의 정책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소비수준, 주관적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밝혀졌으므로 신 노년층에 대해서는 주관적 기대감과 소비수준을 함께 고려한 제도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박주연, 김숙,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가족 내 역할과 지위에 관한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2호, pp.185-206, 2013.
- [2] M. Carrigan and I. Szigin, "The Representation of Older People in Advertisements," J. of the Market Research Society, Vol.41, No.3, pp.311-326, 1999.
- [3] 부경희, "'젊은 오빠' 인식, 인지 연령이 노인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광고정보, Vol.299, pp.38-41, 2006.
- [4] 양정혜, "TV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7권, 제1호, pp.72-105, 2011.
-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국가통계포털. 2010.
- [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KOSIS국가통계포털. 2014.
- [7] 이수진, "베이비붐세대 은퇴 붓물, 여가소비문화 활성화해야," 경기개발연구원, GRI정책제안, 2012.
- [8] 최인영, 최혜경,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1호, pp.81-109, 2009.
- [9] 백학영,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제30권, 제3호, pp.911-931, 2010.
- [10] 유태균, 반정호,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pp.349-372, 2012.
- [11] 유재학, "SVM을 이용한 신노년층의 생활 만족도 예측 모형,"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36권, 제1호, 2009.
- [12] 오민정, 정진철, 전상철, "고령소비자의 소비패턴과 브랜드선택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동향," 경영컨설팅 리뷰, 제2권, 제2호, pp.27-49, 2011.
- [13] 남승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제7권, 제3호,

pp.433-453, 2006.

[14] 최혜경,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통한 한국 노인들의 소비자 욕구 탐색,” 소비자교육정책연구, 제7권, 제2호, pp.23-38, 2011.

[15]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16] 정운영, 정세은,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21-48, 2010.

[17] 김기향, 김용민, 정태영,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료경영학연구, 제7권, 제1호, pp.1-12, 2013.

[18] R. J. Havighurst,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19] 김미령,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51호, pp.7-34, 2011.

[20] 한석태,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441-461, 2008.

[21] 김희숙, 유광자,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pp.461-470, 2013.

[22] 김영근, “고령친화 용품의 소비와 관련된 노인 소비자 행태 특성-대구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21-35, 2009.

[23] 최옥금,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통권51호, pp.277-296, 2011.

[24] 김지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 소비지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권, 창간호, pp.45-63, 2008.

[25] 서정희, “노인소비자의 구매문제 인식 유형과 관련변수-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pp.365-376, 2011.

[26] 이소정, “노인가구의 소비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통권25호, pp.1-8,

2010.

[27] 정순돌, 김성원,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과 Newman 모델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237-256, 2013.

[28] 신학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와 취업, 출생 코호트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4호, pp.161-183, 2014.

저 자 소 개

박 서 영(Seo-Young Park)

정회원



-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박사수료)

• 2010년 9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 문화콘텐츠

최 희 정(Hee-Jeoung Choi)

정회원



- 2005년 3월 : 일본복지대학교 보건복지학과(학사)
- 2007년 3월 : 일본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
- 2013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 문화콘텐츠